

Monthly Report

Nov.

## 11월 VIDO 월간 레포트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새로운 미디어아트 콜렉터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안녕하세요! 저는 VIDO Report의 에디터 Tom입니다. 일단 VIDO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요즘에 거리를 걷다 보면 커다란 디스플레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거에요. 건물의 외부 뿐만 아니라 카페, 로비 등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많아지는데 콘텐츠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까요?

VIDO는 '이 디스플레이(미디어 캔버스)들에 미디어아트를 채우면 어떨까?'하고 시작된 '미디어 아트 구독 서비스'입니다. 아티스트분들에게 전시 공간을, 디스플레이를 소유/관리하는 분들에겐(저희는 '콜렉터'라고 불러요!)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전달해드리는 거죠! 아티스트분들에게 디스플레이는 자신을 표현하는 매체가 되고, 작품을 통해 콜렉터분들은 브랜드와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VIDO Report에선 '미디어 아트에 관한 이야기', '콜렉터분들의 멋진 공간과 미디어 캔버스'를 소개하고, 캔버스를 채워주는 'VIDO의 아티스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시와 건물들이 만들어가는 '예술의 전경'과 예술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전경'을 확인해보세요!

# 11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I Media Art Trend

11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새롭게 단장한 백남준의 '다다익선'

## I 'VIDO's New Collector'

Play with BC, 'BC카드'

## I 이달의 작가 / 작품

'Valic' - 'Symbiote'

## I 'Hello Artist'

'Nix Lee'

#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 11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 (1) 9월 진행된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페어를 바라보는 MZ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이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7만명이 넘는 관람객 중 MZ세대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2) AI가 그린 작품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AI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AI가 그린 작품은 어떻게 저작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AI 단독으로 그린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사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AI의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 받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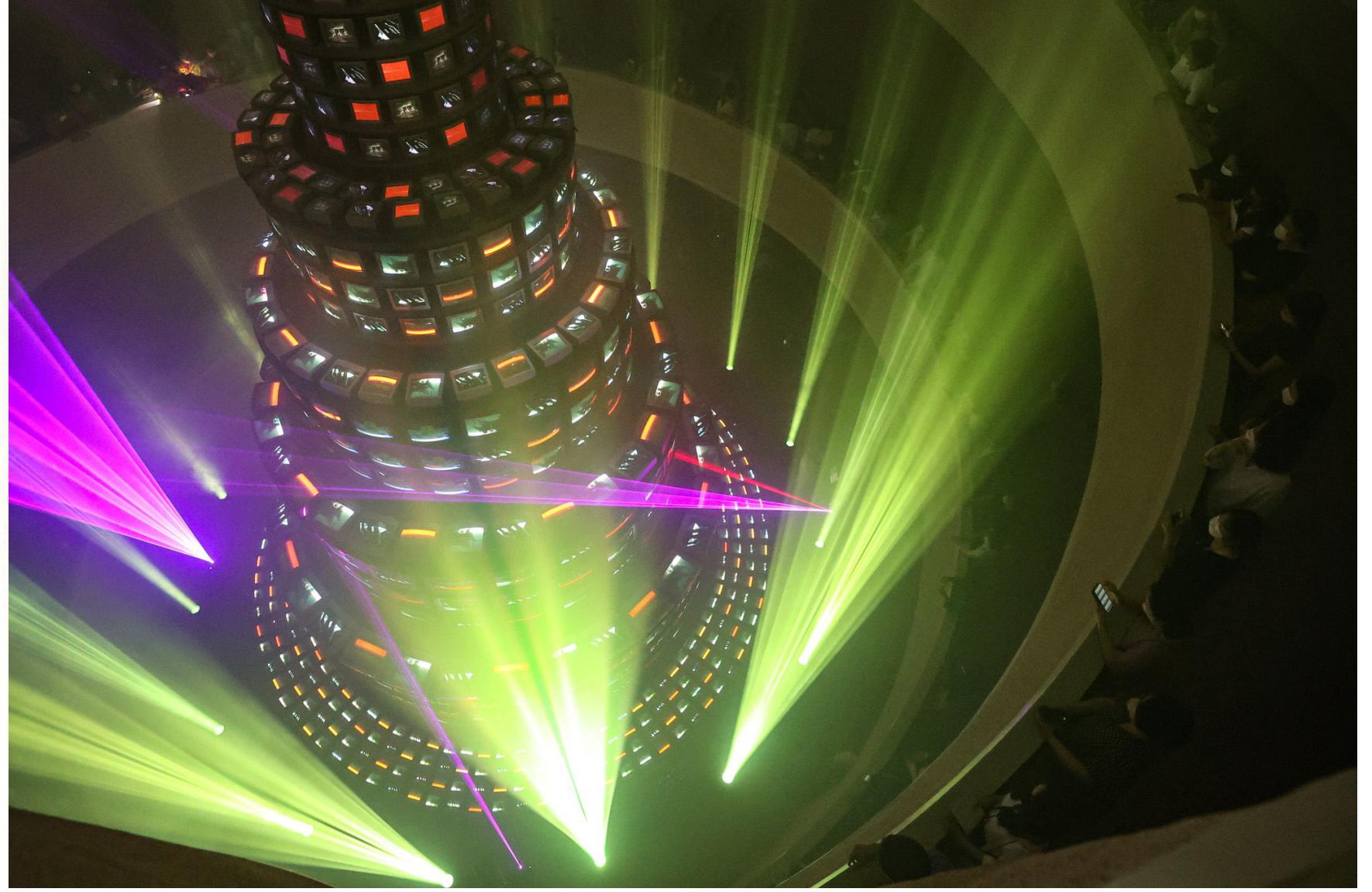
원문 보기

# 새롭게 단장한 백남준의 '다다익선'



<다다익선>, TV모니터, 1988년작,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출처 : 경상일보



2022년 복원된, <다다익선>

출처 : 연합뉴스

1988년에 선보인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대대적인 수리와 부품 교체를 마치고, 4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3대의 CRT 모니터가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숙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매체의 등장은 기존의 것을 밀어내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부품수급 문제와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자체 결함으로 복원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작품에 사용된 1003대의 모니터와 예비품 124대를 정밀진단한 결과, 작동 모니터는 26%(265대)에 그쳤고 86대는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거 및 부분 보존 등의 논의들은 결국 일부 LCD 패널 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다익선>만의 경우는 아닙니다. '미디어'라는 재료가 포함된 작품들은 결국 보존과 보관의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그중 백남준의 작품이 보존/보관에 대한 담론의 대중화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논의 가운데, 작품의 작가인 백남준은 이러한 미디어의 숙명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다다익선 수리 관련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테크니션 이정성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남준 선생님은 생전에 작품 외형을 신기술로 대체하는 것에 개방적이었다.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철학은 영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매체인 모니터 자체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작가와 작품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지금 현재의 다다익선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기술의 발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발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VIDEO's Collectors

VIDEO's Collector

## Play with BC, 'BC카드'



첫번째 VIDEO's Collector는 'BC카드' 입니다! 2,5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내리면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사옥에는 다양한 설치물과 디스플레이로 디자인된 BC카드만의 공간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 '회사'가 아닌 하나의 금융 '놀이터'로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400x1200px의 해상도를 보유한 미디어 캔버스에서는 Red, White, Active, Simple, Easy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아트들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BC카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VIDEO는 콜렉터분들을 위해 매월 상황에 맞는 작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공간 디자인을 고려해서 콘텐츠 큐레이터를 통해 작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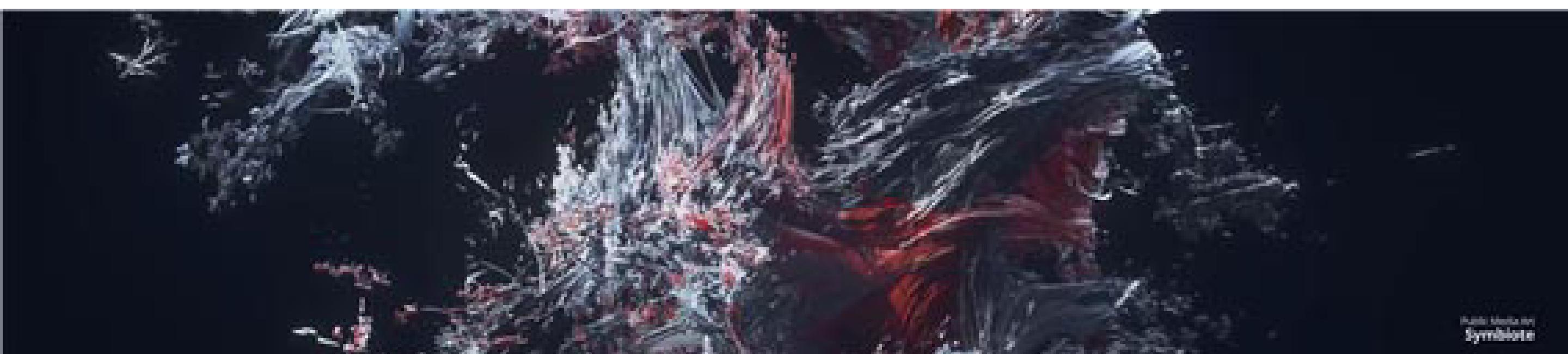
#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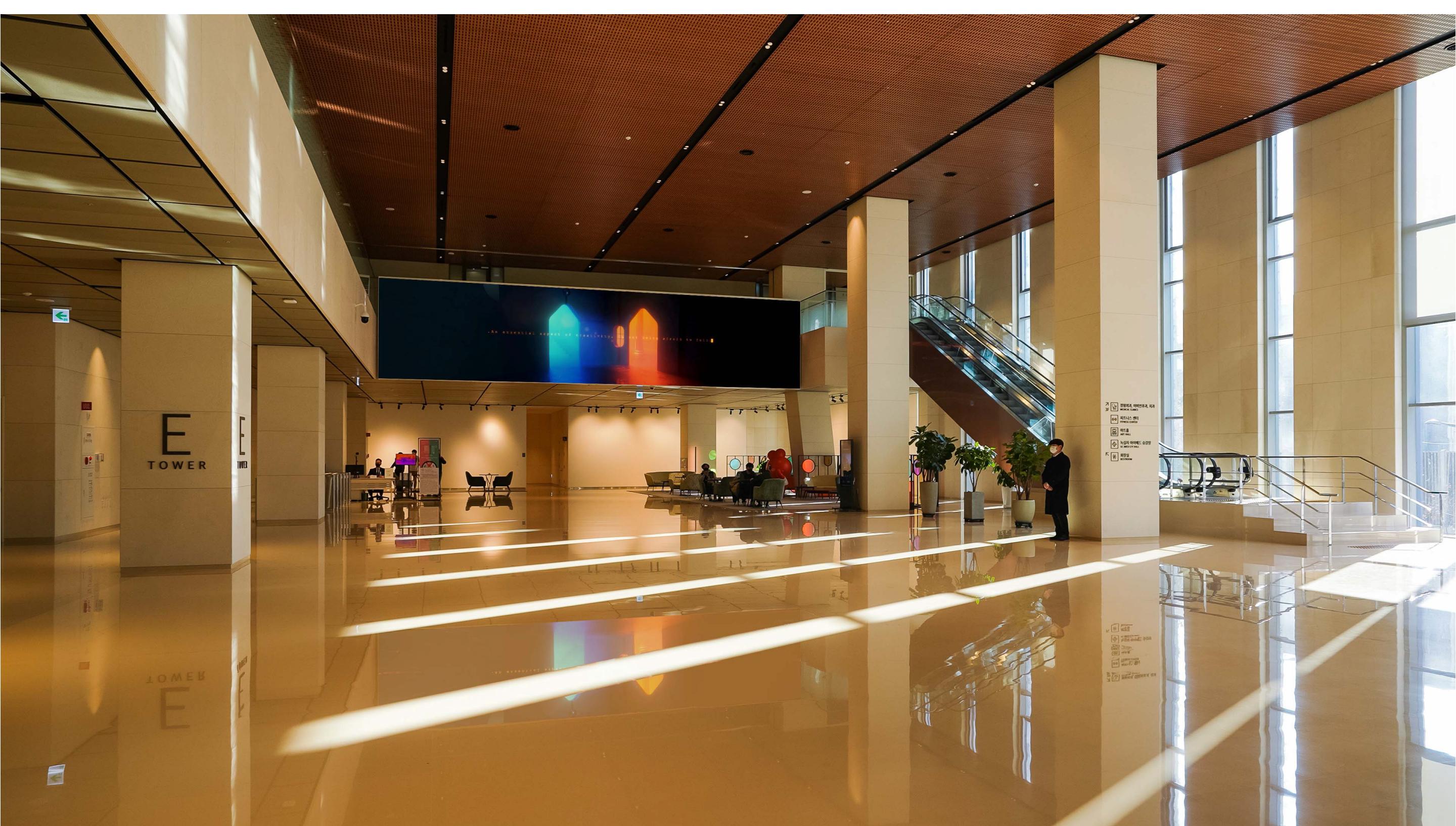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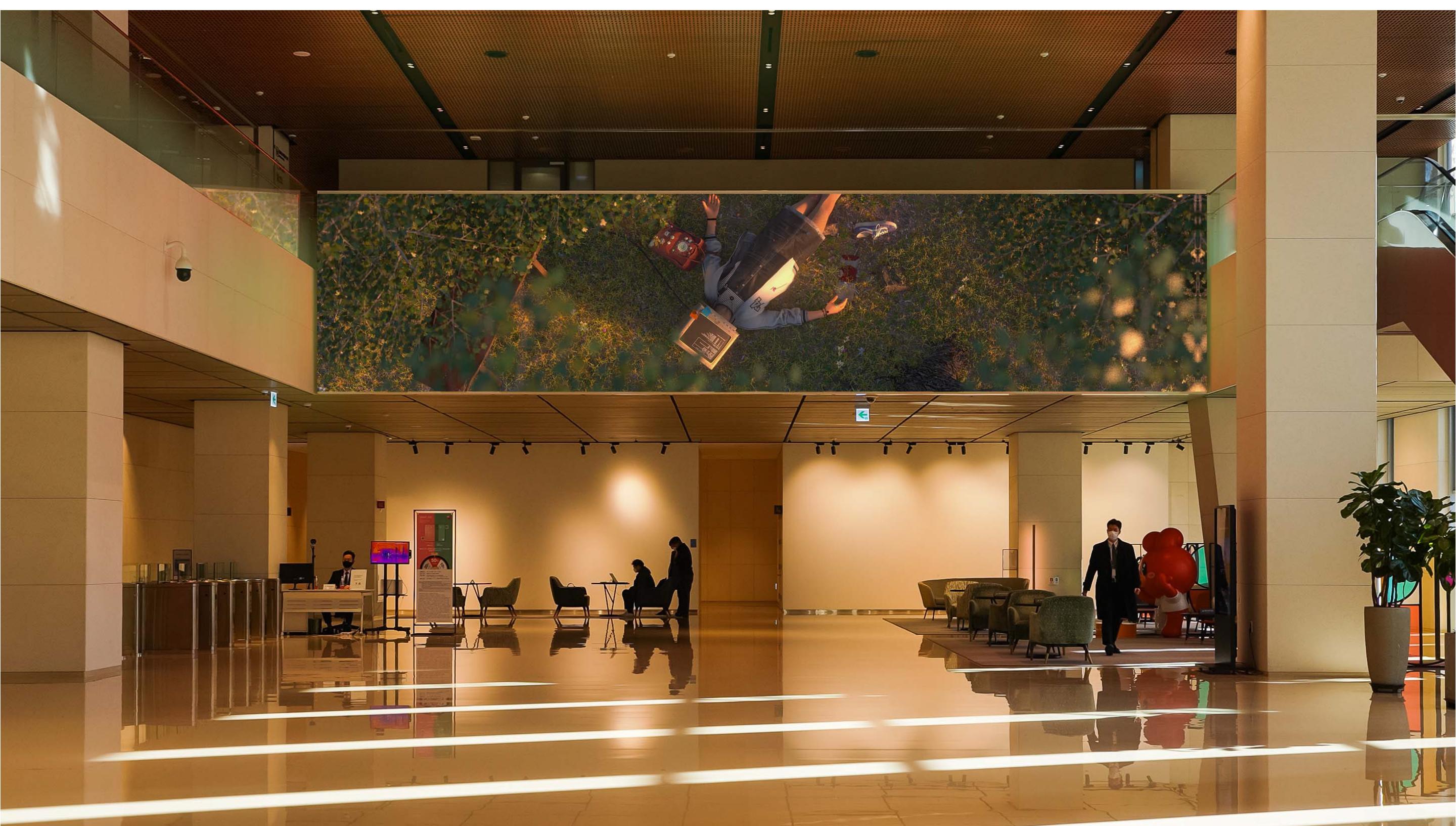
## Valic < Symbiote >



VIDO에서 선정한 이달의 작가는 3D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Valic'입니다. 그는 영상 내 다양한 조명 연출을 바탕으로 머릿속에 있는 장면들을 구현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관찰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에 가장 가까운 비현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달의 작품인 <Symbiote> 또한 Valic의 상상력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영화 '베놈'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인 '심비오톤'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프렉탈 구조가 변형을 이루며 작중 등장하는 '카니지'와 '베놈'의 대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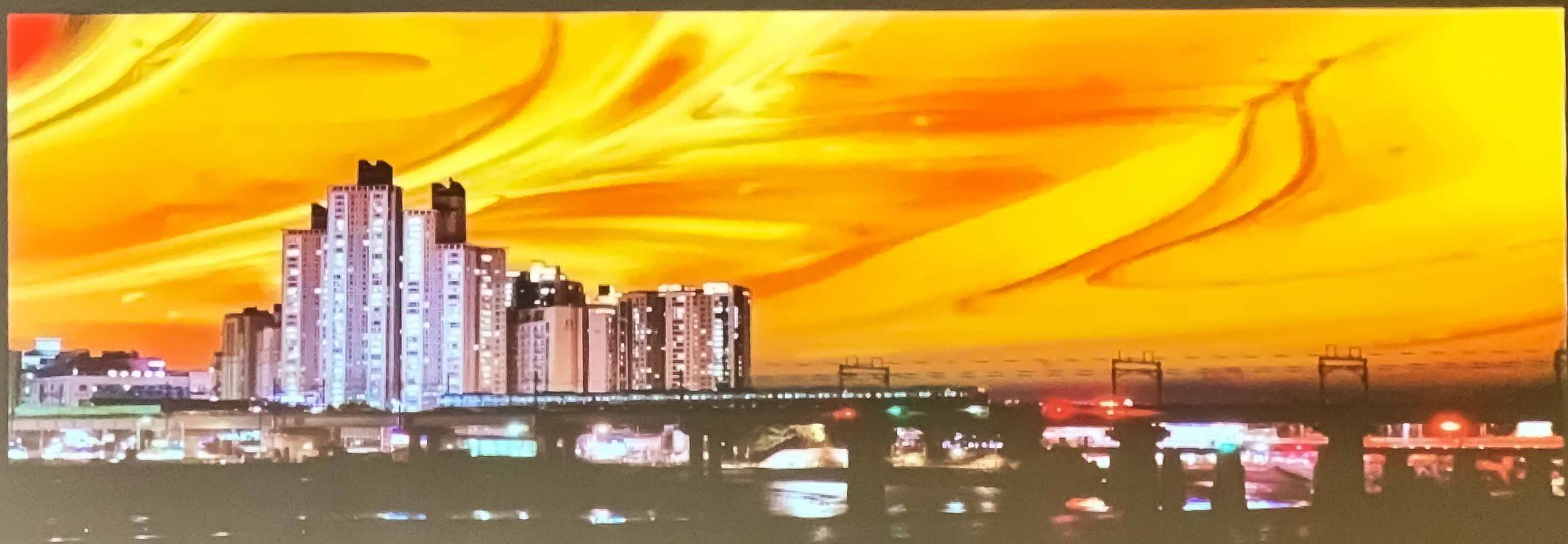


Hello Artist

# NIX LEE



11월 VIDO Report에서 소개해드릴 작가는 '닉스 리(Nix Lee)'입니다. 전공이었던 건축 디자인을 기반으로 건축 사진을 주로 다루었고, 지금은 촬영물을 기반으로 사진/영상/3D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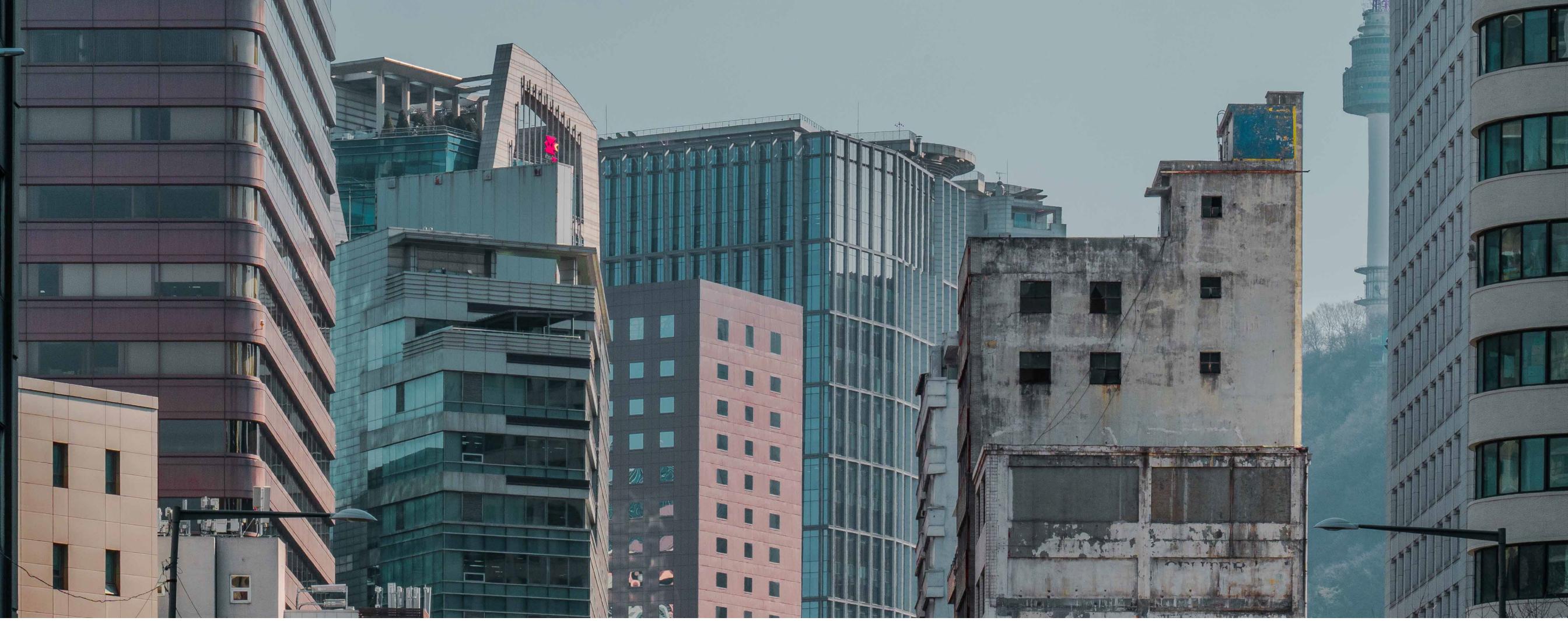


Endlessly flowing city  
끝없이 흐르는 도시

Nix Lee, <Current City>, 2021, 단채널 영상



Nix Lee, <Gateway>, 2020, 캔버스에 디지털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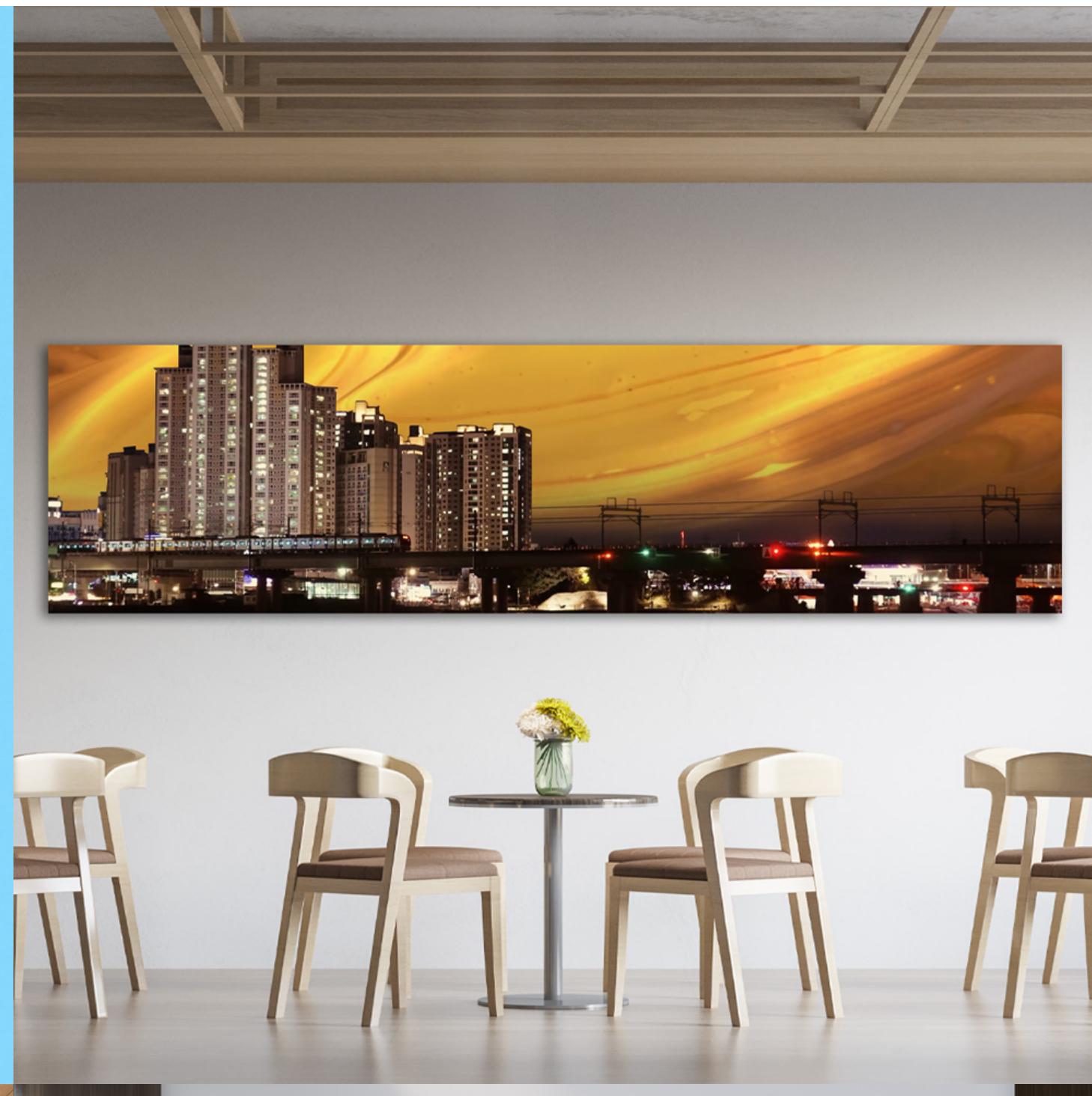


Nix Lee, <Panorama>, 2019, 아크릴에 디지털 프린트

닉스 리의 주된 피사체는 '건물'과 '도시' 그리고 이곳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건축물들의 규칙과 속성, 더 큰 범위에서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완성된 하나의 장면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적인 사진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움직임들과 양상,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 플루이드아트(Fluid Art), 모션그래픽, 프로젝션 맵핑 등으로 형상화합니다.

<Current City>(2021)에서는 수많은 아파트의 베란다 그리고 켜져 있는 불빛들이 보여주는 유기적인 형태에 주목하였고, <Gateway>(2020)에서는 반복되는 교각들과 여기서 나타나는 규칙성, 이들이 주는 장엄함과 신성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곳에서 무한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Panorama>(2019)에선 건물들의 창들을 바라보며, 현대인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형태들을 드러냅니다.



닉스 리의 작품들은 다양한 미디어 캔버스에서 전시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로비,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vido.gallery에 방문하여 닉스 리의 더 많은 작품을 확인해보세요!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